

제4차 YGEC 총무분과

김윤태*, 박덕근*

한국지반공학회에서는 방콕(1991년 제1차, 1994년 제2차), 싱가포르(1997년 제3차)에 이어 2001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제4차 아시아지역 YGEC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YGEC에서 참가자는 비록 소수였지만, 아시아지역 젊은 지반공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명한 강연자를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과 바람을 들었으며, 각자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자유롭게 토론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학술대회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총무분과에서는 이번 YGEC 개최를 위하여 1, 2차 Bulletin 제작 및 발송, 지방지에 학술대회 안내 및 광고, Welcoming Address작성, 학회 homepage내에 4th YGEC전용 site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총무분과의 대표적인 활동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Bulletin 제작 및 발송

Bulletin은 학회안내, 학회성격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1차 및 2차(최종)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아시아 각국의 회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 4th YGEC Homepage운영

학회 homepage내에 전용 site를 개설하여 internet시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인

천국제공항이 학회 2개월전에 개항됨에 따라 학회장까지의 교통안내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homepage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정보화시대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신속히 학회회원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학회 homepage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 효율적 문서수발 및 운영

각 회원국에 대한 national nominee의뢰와 keynote speaker의 확인 및 발표 의사타진 등 연락담당(liaison)으로서 필요한 각종 영문서작성에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기타 국제지반공학회 축사, 토목학회 축사, 우리 학회 격려사 등의 초안 작성을 통하여 국제회의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YGEC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점은 하나의 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으며, 준비위원들의 철저한 사전계획과 점검, 눈에 보이지 않는 co-work 등이 성공적인 YGEC개최에 큰 디딤돌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 정희원, LG건설(주) 과장

*2 정희원, 국립방재연구소 토목연구관